농촌진흥청, 천연식물 추출시료 분양

농촌진흥청이 천연 식물자원에서 뽑아낸 추출물 시료를 식물기능성 연구자에게 공개 분양한다고 6월4일 발표했다.

공개된 추출물은 180여점으로, 총 61개과 252종 508점의 추출물이 분양된다.

기능성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1회당 분양 추출물 점수도 기존 10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했다. 추출물 1점당 분양 분량은 20mg 이내이다.

공개된 식물자원 추출물 목록에는 식물의 학명, 추출부위 및 추출조건 등이 제시돼 연구자가 천연식물을 자원으로 한 기능성 식품, 의약품, 화장품, 생활소재 개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.

추출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(www.nihhs.go.kr)에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.

<화학저널 2012/06/04>